

전통 의생활과 색채문화

윤 양 노 교수

(중부대학교 예체능대학 패션디자인학과)

I. 서론

의복은 의복이 입혀지는 지역의 자연, 사회, 문화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는 의복 자체가 자연, 사회,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의복요소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의복은 특정지역, 혹은 민족에게 전통복식과 생활과 복식문화라는 보편성과 다양성과의 공존적 성격을 띠며 착용된다.

우리의 전통적 의생활 문화는 이러한 특성이 뚜렷하여 이에 대한 연구는 의복 자체의 형태와 구성, 소재, 색채와 문양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의복이 아닌 문화적 측면에서의 이해와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색채는 빛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동일한 색이라도 기후, 풍토, 지역에 따라 달리 느껴지며 또한 개인의 감정, 정서, 문화, 사회현상에 따라서도 이해가 다르다. 따라서 고대로부터 색은 일상 생활 속에서 단순한 미적 표현뿐 아니라 동·서양 각지에서 그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며 가시적 표현효과의 상징적인 시각언어로서의 전달 기능을 갖고 사용되어 왔다.

우리의 전통 의복을 통해 본 색채문화는 우리 풍토에서 어우러지는 의복 색채로서의 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의미와 상징의 수단으로서 독자적인 색채문화를 형성, 계승하였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국제화 시대에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현대 복식에 활용 가능한 한국적 색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연구 의의를 두고 시대적 변화와 전통의복에 표현된 색채를 통해 의생활과 색채와의 관계를 문화적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II. 본 론

스위스 태생 심리학자 칼 융에 의하면 인간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여진 매우 제한된 정보들로 의식세계를 이루어 내지만 이러한 의식세계보다 훨씬 방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무의식의 세계는 인간의 언어로 구체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symbol)’을 통하여 떠올려진다고 한다.

전통 의복에 표현된 상징적 언어로서의 색채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술적 색채, 음양오행에 따른 복합 문화로서의 색채, 자연주의적 상징으로서의 색채, 상징 언어적 색채문화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 주술적 색채

샤머니즘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몽고, 만주, 중국, 한국, 일본 및 서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원시적인 주술적 자연 신앙의 형태이며 한국의 샤머니즘의 원류 및 계통은 시베리아계라는 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랜 역사를 볼 때 지형적 특성으로 보아 수렵, 농경, 어로생활을 영위한 그 근저에는 역시 자연숭배와 관련한 샤머니즘적 요소와 음양오행의 우주관에 의미를 둔 자연주의적 정서가 농후하다. 특히 이러한 요소들이 삼국시대에는 복식형태나 鳥羽冠, 치마의 주름, 벽화중의 天馬, 天人の 복식에서 샤만복식 요소가 뚜렷이 보이며 특히 복식색채에 있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아시아계 유목민족들이 신성시하는 백색 중심의 샤만 복식의 색채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중국문화와 접촉함에 따라 조선시대에는 백색중심의 색채에 음양오행 원리에 의한 정색과 간색, 상생색의 색채배색이 왕실과 班家, 일반 서인의 복색을 통해 聖과 俗의 개념으로서의 색채, 중국문화와 전통문화 간의 이중 구조적 색채문화, 왕실과 반가, 서인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계급 구조적 색채문화의 성향을 띤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색채문화의 기저에는 다분히 祈福信仰과 관련한 샤머니즘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2. 음양오행에 따른 복합 문화로서의 색채

음양오행적인 우주관에 바탕을 둔 사상체계는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기원전

3세기경 漢의 騶淵에 의해 정립되었다. 음양오행에 따른 색채문화는 고대 중국의 연중행사나 통과례 등의 의식 및 색채사용에 있어 규범을 이루었고 이러한 사상체계는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의 전통색 색체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중국문화와의 교류 이후 우리의 색채사용은 呪術的이나 禁忌사항, 吉凶에 사용되는 색이 사회적 계급구조에 따라 음양오행에 따른 오방위 정색과 간색의 사용, 상생적 색채 배색이 색채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색채 문화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즉 오방위에 따른 正色(적,청,백,흑,황)의 개념은 왕실의 예복 색으로 한정되고 間色(녹색,벽색,홍색,자색,유황색)은 반가의 복식에서 상생색의 색채배색(五正色과 이들 색의 각각의 相剋과 相生의 관계에서 五間色을 만들어 낸다. 이들 간색중 상극색은 음양의 조화로 서로 泔가 되는 색이며 상생색은 이와는 반대로 서로 화합되는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간색을 내거나 배색을 할 경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색으로 색의 조합을 이루고 있다)으로 복식에 사용되고 서인의 계급의 색채는 초기 우리민족 색채의 근간을 이루었던 백색(素色)이 주를 이뤄 정색과 간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고유의 색정서와 중국적 색정서의 이중구조를 띤다.

3. 자연주의적 색채문화

흔히 우리민족을 백의민족이라 하여 염색술이 발달하지 않은 것과 연결 지어 이해될 수 있으나 고구려 고분벽화나 유물을 통해 보여지는 색채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색명들은 우리민족의 백의착용은 염색술이 발달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두어 해석함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백색이라는 색 '자체의 의미보다는 모든 색을 포용할 수 있는 백색으로서 우리민족의 민족성, 순박함, 자연에의 순응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천연염재를 이용한 우리 선조들의 염색은 화학염료에 비해 염료, 매염등에 있어 화학염료와는 달리 정량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비과학적이고 동일 색상의 다량 염색의 제한을 갖고 있으나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환경의 다양한 색변화와 정색을 사용치 못하고 수많은 간색을 내기 위한 중염의 염색과정에서 얻어지는 색채는 오히려 비정량적 염재의 사용과 가가호호 염색하는 이의 색정서가 반영되어 섬세하고 다양한 색채를 창조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청색계를 대표하는 쪽염의 경우 열은 회색에서 반복횟수에 따라 짙은 쪽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채를 얻을 수 있었으며 붉은 색을 내는 홍화 역시 견, 모시, 목면 등 옷감의 종류에 따라 달리 색이 표현되는데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색은 우리의 산과 들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의 색이었다. 따라서 복식 유물에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움과 문헌자료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관용적인 색명들은 선조들의 생활이 자연에의 순응과 동화를 근본으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상징언어로서의 색채

우리의 전통 의생활에서 보여지는 상징언어로서의 색채 사용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계급상징으로서의 색채를 들 수 있는데 동서양을 통해 색채를 통한 계급 표식은 服色이나 帶 또는 장식 襪의 색을 통해 보여진다. 특히 동양에서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색을 통한 계급표식이 엄격하여 색에 대한 禁制가 행해지기도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백제의 계급별 帶色(紫, 皂, 赤, 靑, 黃, 白)의 구분과 신라의 四色公服制度(紫衣, 緋衣, 靑衣, 黃衣) 고려, 조선시대 왕실의 궁중 예복의 색과 반가 및 서민의 색의 구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상황을 나타내는 색채는 일상생활 속의 의복색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회장감은 보통 자주색을 쓰나 끝동과 고름에 쓰는 색은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풍습이 있어 남색 끝동을 다는 경우는 아들이 있는 사람, 자주고름은 내외가 함께 생존해 있는 사람, 파수는 주로 단색 혹은 계통색의 배색을 한다. 그러나 신윤복의 풍속화에서 보면 기녀들이 자주고름에 남색 끝동을 한 모습이 빈번히 보여 이러한 풍속이 정확히 지켜지지는 않은 듯도 하나 이는 기녀신분이 갖는 특이 상황에서 비롯되어 보편적 여성의 삶에 대한 기대로써 비롯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한다.

반면 서민 부녀자들의 저고리는 金得臣 이나 金弘道의 풍속화를 통해 볼 때 흰색의 민저고리를 착용하거나 고름색만 달리 하는 경우가 많다. 복식의 형태가 동일한 전통 사회에서 색채는 색채조화에 의한 아름다움의 표현을 위한 미적 요소 외에 생활 속에서 무언의 가시적 표현기능을 갖고 사용된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기복신앙과 관련된 색채는 지역적 생활과 관련하여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 어업을 위주로 하는 생활에서는 아이의 옷소매 끝에 검은 끝동을 달면 바닷일을 잘한다하여 어려서부터 남자아이의 옷에 검은 끝동을 달기도 하는데 검은 색은 오행중 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려서부터 물과 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염원일 것이다. 반면 황해도에서는 아이에게 재주가 있으라는 의미로 검정 끝동을 달기도 한다.

황해도에서는 결혼 할 때 썼던 청, 홍색 실로 깃에다가 태를 두르면 잔병을 앓지 않고 백일 기침을 하지 않는다는 속신과 또 기침을 하는 경우 청, 홍색 실로 매듭을 나이수 대로 만들어 옷고름을 걸어 주기도 하는데 이는 몸 속의 양기와 음기를 균형있게 맞춰 무병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외에도 다섯 가지 색채를 이어 붙여 만든 색동저고리를 비롯하여 오방장 및 까치두루마기, 신부의 함에 넣는 오방낭자, 시집갈 때 신부가 입는 원삼의 색동 역시 오방색의 원리에 따라 오방의 신계 고하고 오방의 모든 잡귀로부터의 제액과 무병장수에 대한 염원으로 해석된다.

청포를 담아 우린 소주는 부스럼을 낳게 한다거나 눈이 찌르는 듯 아프거나 아프고 난 후에도 눈이 붓거나 하면 청포를 뜨겁게 다리미질하여 눈을 가리고 난 후 찢 콩으로 만든 베개를 베고 누워 있으면 낫는다. 여인의 경혈이 멎지 않으면 청포와 그 여인의 머리카락을 동시에 태운 재를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속신들은 청포자체에 치료효과를 부여하는 비과학적 사고 이전에 푸른색에 깃든 주술성과 이를 통한 기복적 의미로 해석된다.

옷에 붉은 끝동을 달고 옷깃에 붉은 천을 대는 것은 인체 안으로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辟邪의 의미가 있다.

평생 붉은 주머니를 차고 다니면 병을 앓지 않는다. 어린이의 손톱에 봉숭아문을 들이는 것, 질병이 유행할 때 어린이나 부인들의 옷소매에 끝동과 옷깃을 자주색으로 하거나, 경주지방에서는 회질 예방에는 쇠고기, 고래고기를 옷 앞섶에 꿰매고 다닌다거나, 혼례에 사용되는 색 역시 청,홍을 쓰거나 새색시 이불은 잇색과 쪽색으로 하는 것은 양기와 음기의 부부화합을 통한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염원인 것이다.

백색과 관련해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목욕후 백색 옷으로 갈아 입히고 돌날까지 백색 옷을 입히는데 백일까지는 세상에 태어나서 자연에 적응하는 시기이며 보통 1년이 지나서야 비로서 직립보행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므로 백일 안에 색이 있는 옷을 입히지 않음은 청정과 장수, 신성, 오방의 모든 악귀로부터 보호하며 백색이 상징하는 백발장수를 비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 상복으로 素色, 백색을 입음은 슬픈 마음과 死者의 죽은 영혼이 좋은 세계, 즉 다시금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복적 염원으로서의 색채는 다분히 음양오행적 사고에 기인하고 있으나 태어남과 죽음에 사용되는 백색의 의미를 통해 우리의 색채문화는 음양오행 이전의 자연승배, 샤만니즘적 색채정서가 근본임을 알 수 있다.

III. 결 론

우리의 옷은 단순히 시각적 조형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우주적 자연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동양의 미의식인 오행과 仁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를 드러내는 봉제나 재단법보다는 항상 신체를 경계로 너글너글한 여유와 공기층이 형성되어 충동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여유로운 움직임 속에서 평면재단에 의해 하나 하나의 솔기 이음이 의미를 갖게되고 또한 착장으로서 입체화를 이룬다.

우리의 전통 의생활은 단순한 형태에 철학적 의미로서의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단아한 아름다움과 더불어 이러한 의생활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서를 생활 속에서 느끼며 살아왔다.

색채는 개인의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문화를 대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전통 의생활에서 느껴지는 색채문화는 가장 소중하고 숭상했던 백색을 기본으로 아름다운 색 자체의 사용보다는 생활과 연관된 철학적 의미와 표식수단, 기복적 염원을 담은 고도의 색채 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미 오래 전 우리의 선조들이 확립해 놓은 고도의 색채문화를 계승하고 국제화 시대의 한국적 디자인의 발전을 위해 전통 색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색채문화 연구기반의 확립과 보급을 통해 아름다운 우리의 색채문화가 전승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一志社, 1985
- 李圭泰, 「韓國人의 生活構造」衣, 기린원, 1994
-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25冊, 1977-1994

- 今木 加代子, “コーリアンの服飾と呪”, 比較民族衣裝論集, 平成11年
- 朴錦珠, “시베리아 샤머니즘과 샤만 服飾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5
- 朴德美, “한국 의생활 문화에 나타난 俗信”,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8
- 朴仁卿, “韓民族의 白衣風俗 考察”,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柳恩熙, “韓國의 白衣 象徴에 관한 研究”, 「服飾」 20호, 1993
- 윤양노, “한국의 전통색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제1권 2호, 1998
- 윤양노, “색채의 가시적 표현기능에 관한 연구 -공연. 영상예술의상을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예술, 체육문화연구소, 2002. 9.
- 尹惠聖, “朝鮮後期 풍속화에 나타난 치마 저고리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全惠淑, “우리나라 古代喪祭속에 반영된 宗教觀”, 「韓國服飾」 9호,
석주선 민속박물관, 1991
- 조효순, “조선조 풍속화에 나타난 여자의 기본복식연구(1)”,
한복문화학회지, 제1권 2호, 1998

〈 토 론 〉

전통 의생활과 색채문화

안 명 숙 교수(광주대학교 디자인학부 의상전공)

의복의 색채는 국가와 그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 시기에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관습이나 사상, 유행에 따른 미적 감정이 다르게 표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 관습적으로 선호되고 상징되는 것이 바로 전승적인 성격의 전통색이다.

한국의 색채문화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다르고 더 나아가서는 서양과 동양의 색채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다. 색채란 단순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저문화를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로서의 전통적 색채관은 국가마다 특징적이고 의미가 다양하다.

발표문에 따르면 전통 복식에 표현된 색채를 기복신앙과 관련된 샤머니즘적 요소인 주술적 측면, 음양오행에 근간을 둔 측면, 자연에 순응하고 동화하고자 하는 측면, 착용자의 계급표시와 상황판단과 색채에 담겨있는 기복신앙적 내용을 다룬 상징언어로서의 측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전통적인 색에 대한 관념과 상징적 의미를 잘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색채가 갖고 있는 특성은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풍토, 사상, 주술 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기후, 지리적 풍토성에 기초를 두어야 우리가 왜 흰색(白色)을 좋아했고, 原色の 사용이 많았는지 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우리나라 의복색으로 백색이 많이 입혀지고, 외국사람들이 감탄해 하는 원색의 아름다움(노랑저고리와 다홍치마) 등은 우리 고유의 전통 의생활 문화와 관련된 색채관이다.

또한 의복의 색채 선택은 생활에서 선택되는 색과 공통적인 기호로 나타나며 이것은 색 자체의 빛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의 염원이나 회구가 표시되어 나타난 색의 주술적 선택이다.

한국복식을 이루는 여러 구성 요소 중 색채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시대에 따라 형태와 소재는 변화해 왔다. 그러나 전통 색이란 꾸준히 시각적 표현과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우리 복식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물론 시대에 따라 유행된 색은 현대뿐 아니라 전통 속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제화 시대에 차별화된 문화보급 차원에서도 우리의 전통 색 재현과 발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전통적인 의생활과 관련된 색채에 대한 올바른 의미 전달과 많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 색채문화에 대한 연구로 전통적인 색채에 대한 기초적인 근간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발표였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도 언급했듯이 찬란했던 고도의 색채문화를 계승하여 우리 전통색을 재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아름다운 색을 현대에 응용할 수 있게 자료화·표준화하는 일이 앞으로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들어 전통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방면으로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막연하게 우리의 색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전통적인 색채관을 토대로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여 우리의 전통색 재현에 과학적·객관적·현실적 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